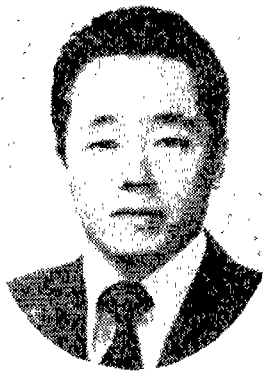


“活潑한 電源開發事業”

韓國電力株式會社
理事 金 仁 植



1. 序 言

電氣의 “電”字도 똑똑히 모르던 本人이 電力會社의 祿을 먹기 시작한 지 於焉 2年의 歲月이 흘렀다. Kw와 Kwh를 비롯해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갖가지 專門用語와 낯선 業務의 洪水속에서 내가 果然 電氣會社사람 이 될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하루 하루 일에 쫓기다 보니 어느새 新聞記事속에서 “電”字가 유별나게 눈에 잘 들어올 程度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도 廣義의 電氣人이 되었노라고 自負해도 可찮지 않을까?

電氣會社에는 季節이 없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電氣의 供給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도 아니며 供給方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어렵고 지루했 던 한 해를 보내고 나면 “올해에는……” 하고 來日에 對한 새로운 希望과 抱負를 가지게 마련이고 특히 昨年과 같이 1년에 네번씩이나 石油價格이 올라 이러다가는 會社創立 後 最初의 經營赤字를 記錄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不安한 속에서 한 해를 그럭저럭 無事히 고비를 넘기고 나면 한숨을 돌릴 餘裕가 있어야 할텐데 눈앞에 가로 놓인 몇가지 難題들이 밝고 希望에 찬 한해를 約束해 주지 않으니 답답하다.

2. 樂觀을 不許하는 資金展望

昨年과 마찬가지로 今年에도 韓電의 資金展望은 不透明하다. 損益面에서는 豫算上 95億원이라는 黑字가 計上되고 있으나 發電所의 建設과 送配電施設의 擴張을 繼續해야 하는 우리 會社는 今年中에 内外資를 合해서 2,280億원이라는 莫大한 資金을 投入하여야 하는데 그 財源調達이 容易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지금부터 豫見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資金難은 電力事業에 附隨되는 宿命的인 것으로서 非單 昨年이나 今年에 局限된 現象이 아니고 해마다 거듭되어 왔으나 그 때마다 上下가 一致團結해서 難局을 克服해 왔다. 本人이 韓電에 몸 담은지는 不過 2年餘이지만 이 會社의 傳統과 底

力을 자랑할 만 하며 本人도 그러한 背脊을 믿고 힘자라는데까지 해 보겠다는 意慾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活潑한 電源開發事業

올 해는 電源開發面에서 매우 바쁜 한 해이다. 現在 試運轉中인 麗水火力 1號機(200,000Kw), 76年 竣工豫定인 麗水火力 2號機(300,000Kw)와 古里原子力 1號機(595,000Kw) 외에 新規事業으로서, 古里原子力 2號機(650,000Kw), 其他 地域 原子力 1號機(678,700Kw), 仁川火力 3.4號機(各 325,000 Kw), 淸平揚水(300,000Kw), 三浪津揚水(300,000Kw), 嶺東火力 2號機(200,000Kw) 등이 外資財源의 確定에 따라 本格的으로 推進될 豫定이다.

한편 送配電施設工事に 있어서도 올 해에는 去年의 472億원보다 102%가 늘어난 955億원으로 投資規模가 늘어나 發電所 建設 못지 않게 바쁠 것으로 보여진다. 國際的인 景氣不況에도 不拘하고 韓電의 事業活動이 이렇게 活潑하다는 것이 “電力은 國力”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多幸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4. 12.7 料金構造 改編

이 機會에 74. 12. 7에 있는 電氣料金の 構造改編에 關해서 그 趣旨를 簡單히 說明코자 한다. 이 때에 이루어진 平均 42.4%의 引上調整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單純한 需用種別에 對한 一律的 引上이 아니고 에너지의 積極的인 消費節約 誘導와 合理的인 電力使用을 期할 수 있도록 料金體系 全般에 걸쳐 構造를 改編한 것이다.

이 가운데 特別히 눈에 띄는 것은 從前까지는 電氣를 많이 쓸수록 그 料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消費誘導型이었던 遞減制를 非生産的인 電力은 積極 節約해야 個人이나 國家에 도움이 된다는 消費節約 風土를 物理的으로 實感케 하고 그 實踐이 生活化되도록 遞增制로 轉換한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特定需要部門에 對한 料金の 割引制度를 大幅 整備하여 公平負擔原則에 따른 料金制度로 正常化한 것이다. 이와 같은 料金構造의 改革은 에너지難을 감고 있는 많은 國家에서 이미 73年末 또는 74年初부터 實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 施行이 늦은 感이 있다. 一般的으로 한 制度가 바뀌면 社會 一角에서는 拒否反應이 있는 것이 常例이나 우리나라의 資源事情을 돌아 볼 때 個人이건 企業이건 間에 勤儉節約의 精神이 하루바삐 定着化하여야 한다는 點에서는 그 누구도 異議가 없을 것이며, 이번의 料金構造 改編의 不可避性이 理解되리라고 믿는다.